

사우스센터 몰, 폐쇄된 시어스 빈 공간 분할해 세 테넌트 유치



캘거리 사우스 센터 몰(Southcentre Mall)이 2018년 시어스(Sears)의 폐쇄로 인해 비워있는 공간을 세분화해서 임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옥스포드 부동산 그룹은 시어스 백화점이 남긴 23만 5천 평방 피트의 소매 공간에 대한 단일 앵커 테넌트를 찾는 대신, 여러 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해 10만 평방 피트의 공간을 리노베이

션하기로 했다.

윌로우 파크 남동부 캘거리 커뮤니티에 위치한 쇼핑 몰 1층엔 Winners, Dollarama 등 주요 소매 업체 3곳이 들어올 예정이다. Dollarama는 올 가을에 개장할 예정이며 다른 두 소매 업체는 내년 봄에 개장해야 합니다.

옥스포드 부동산에 따르면 전체 프로젝트는 2022

년에 완료 되고 새로운 업체들로 인해 150 개의 영구 일자리가 창출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공간이 재개발되면 옥스포드 속성(Oxford Properties)은 최대 5 개의 소매 업체가 거주 할 수 있다. 사우스 센터 몰(Southcentre Mall)은 이미 160 개가 넘는 매장이 있으며 캘거리에서 가장 큰 쇼핑 센터 중 하나이다.

캐나다인 한국 호감도 61% 크게 상승



반년만 약 10% 상승... 호감도 최고는 영국·일본
코로나 대처 '최악' 미국 호감도는 15% 급락

캐나다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반년 사이에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캐나다 여론조사기관 리처시코(Research Co.)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1000명의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한국 포함 총 15개국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61%의 캐나다인이 한국에 호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아주 호감'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3%, '적당히 호감'인 응답자는 48%였으며,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3%(아주 부정적:7%)에 그쳤다.

지역별 호감도는 서스캐

처원/매니토바가 76%로 가장 높은 가운데 BC주(66%)도 평균보다 높았으며, 앨버타(54%)는 가장 낮았다. 남성 캐나다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68%)와 여성의 호감도(54%)가 제법 차이가 나는 것도 눈에 띄었다.

지난 12월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52%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호감도는 반년 사이에 10% 가까이 상승하며 15개국 중에서 호감도가 가장 많이 상승했는데, 이는 한국이 캐나다 당국과 언론으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처 성공 국가로 자주 언급된 것이 국가 이미지가 상승하는데 좋은 효과를 냈던 것으로 풀이된다.

올 초부터 전 세계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캐나다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대한 시선도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번 코로나19 사태를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이웃'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32%에 그치며, 작년 12월 조사보다 무려 15%가 하락했다.

중국의 경우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시작된 곳인 데다가, 화웨이 사태로 양국의 관계도 악화되며 호감도는 역대 최악인 21%인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에 대한 호감도는 작년 12월 조사 때 보다 9%가 하락했음에도 여전히 15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73%였으며, 일본(70%), 이탈리아·프랑스(69%), 독일(67%)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캐나다인의 호감도가 가장 낮은 국가로는 북한(13%), 이란(16%), 사우디아라비아(20%), 러시아(26%)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지용양, 미스캐나다 본선에 진출

모처럼만의 한인사회 경사다.

토론토 15세 이지용(영 어명 Julia Lee·23)씨가 미스 온타리오를 넘어 미스 월드캐나다 본선에 진출했다. 신장 174cm에 몸무게는 54kg.

지난 18~19일 양일간 토론토공항 메리어트호텔서 열린 미스온타리오 대회에서 이씨는 수십 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본선행 티켓(10장) 중 한 장을 받았다. 지난 2001년 토론토 조성희씨가 미스캐나다 본선에 진출, '캐나다 최고 미인'으로 등극한 이후 19년 만의 낭보다.

다운타운에 거주하는 이씨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 제 신념이다. 라이어스대학교 졸업 이후 새로운 경력을



만들고자 대회에 도전했다"며 "매 순간이 정신적인 싸움의 연속이었다. 호텔 방에 돌아와서도 워킹과 포즈·연

설·무용을 계속 연습하느라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다. 노력의 대가인지 결과가 좋아 정말 기쁘다"

라고 환하게 웃었다. 60명의 참가자 중 아시아계는 2명 뿐이었다.

"김치찌개와 발라드 음악을 좋아하며 한국계 혈통이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말하는 그는 "본선에서 한국문화를 적극 알리고 한인사회에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싶다. 코로나이후 인종차별도 심해졌는데 동양인 여성이 이곳에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큰 포부를 밝혔다.

6살 때인 2003년 가족과 함께 토론토에 온 이씨는 운동을 좋아했고 평소 남을 먼

저 배려하는 마음과 수줍음이 많은 평범한 소녀였다. 이번 도전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아 가족과 친구들이 크게 놀랐다. 이씨의 장래희망은 어린이·청소년 정신건강치료가 되는 것이다. 정신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아이들이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것.

딸의 갑작스런 도전에 대해 지용씨 어머니는 "지용이는 10년 동안 발레를 배웠고 재즈·아크로배틱스·합합 등 못하는 춤이 없을 정도로 댄스를 좋아한다. 이번에는 그동안 쌓아둔 모든

재능과 에너지를 마음껏 펼칠지 바란다"고 말했다.

본선은 오는 11월 첫 주에 열린다. '아름다움을 주제로 한 연설', '이브닝가운 심사', '소셜미디어·기부 접수', '모델링 심사' 등을 거쳐 최고 미인에게 영예의 왕관이 수여된다.

"8년 동안 같은 발레학원에 다녔던 친구 카브리엘 델러맨을 대회장에서 보고 반갑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다. 본선에 나란히 진출한 그는 평창올림픽에서 단체 금메달을 딴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다."

캐나다 원어민 영어회화 레슨

ENGLISH CLASS
원어민 영어

esl2019canada@gmail.com
Tel : 403-891-3162 / 403-264-4426

LYM VIOLIN LESSON

대입실기 지도/ 영재 스키 교육
West Kesington Tel : 403-689-6485

북/ 장구/ 아쟁/ 징 한국전통예술 레슨

Korean Art Club Tel: 403-510-8077

PIANO LESSON

어린이 조기 교육 전문
Calgary NE

일러스트레이트 / 인디디자인 개인 레슨

Ai Id
Tel : 587-664-1042

코딩 스쿨

COODING BUDDIES
Tel: 403-422-1622

골프 레슨
Beddington Golf
Tel : 403-686-2171

유튜브 제작 실기
셋업부터 올리기까지
Tel:403-926-3890

You Tube

현 화실

Tel (403) 861-9290